

도청이전 신도시 교육특구 추진, 용역보고회 개최

-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고의 교육 도시로 육성



충청남도가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청이전신도시를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 홍성·예산군, 홍성·예산교육청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4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성·예산 일대의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이 교육특구 사업에 반영되었다.

도청이전신도시에는 혁신적인 일반고와 국제고등학교 신설 방안이 제시되어 우수 학교가 유치되고, 홍성·예산군은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도심형 다문화체험센터 설립 운영, 우수 원어민 교사 지원확대 등 원도심의 교육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는 도청이전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오제직 교육감, 이종건 홍성군수, 최승우 예산군수가 ‘도청신도시, 홍성·예산군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교육특구는 금년 상반기에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여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 홍성·예산군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도청신도시는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홍성·예산군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원도심권의 인구유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2012이후 도청이전신도시에 특목고와 우수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신도시로의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확정

- 2012년까지 48개 사업지구에 4,792억원 투자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주시 등 8개 시·군에 4,79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8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어 도가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공주·보령·논산시,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등 8개 시·군의 성장동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에 확정된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원대상 시·군의 특성과 투자의 효율성, 파급효과가 큰 성장동력사업을 선정하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시·군별로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4개 분야 48지구의 성장동력사업에 4,7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분야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등 21지구 3,373억원 ▲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금산군 개삼터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등 9지구 421억원 ▲지역특화분야는 금산군 인삼

명품화사업 등 12지구 860억원 ▲생산유통분야는 서천군 장항 수산물처리저장 시설 등 6지구 138억원이 투자되며,

재원마련은 ▲국비 1,452억원 ▲도비 1,452억원, ▲시·군비 1,357억원 ▲기타 531억원으로,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은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이 두 성장거점을 양대축으로 삼아 낙후된 서남부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다채롭게 열려

— 23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도민 3천여명 몰려 ‘휠체어’ 등 체험



충남도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3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3천여명의 도민들이 장애의 구애없이 어울려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1부는 기념식, 2부는 문화행사체험 순으로 나누어 열렸는데, 1부 기념식에서는 충남도 장애극복 대상으로 선정된 강창수(홍성군)씨와 모관순(천안시) 등 16명이 이완구 도지사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2부에서는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열고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단「희망울림」의 연주회를 시작으로 시·군 대표 노래 및 장기자랑, 가훈 써주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이 날 장애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체험해 보기 위해 이 지사를 비롯한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장애인들을 휠체어에 태운 채 밀고 입장하기, 장애인 재활기구 시연해 보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각종 체험행사가 펼쳐졌으며, 장애인 예술인들이 그동안 창작활동을 통해 작업해온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작품 감상을 만끽하는 하루가 됐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일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을 홍보하여 비장애인들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이 법률의 효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이 지사는 “각기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맛을 내듯이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여러분은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과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여건조성과 각종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 환황해경제권 중심축으로 우뚝”

-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2025년까지 7조4천억원 투입 5,505만㎡ 개발
-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거점 도시 개발

충청남도과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4월 25일 드디어 확정되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윤호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충남의 송악, 인주, 지곡과 경기도의 포승, 향남 등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미래동력산업의 국내 최대집적지이며, R&D연구소, 대학, 연관업종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세계수준의 클러스터로 발전가능한 양호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등 외자유치의 선행조건인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비용 등 투자매력이 있는 곳이다.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보장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자동차 부품, IT, BT 등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오는 2025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지정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위치하고 구역 총면적은 총 5,505.1만㎡으로, 이중 충남이 3개 지구 2,959.7만㎡, 경기 2개 지구 2,545.4만㎡이며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 면적은 5,263.1만㎡며 개발 유보지역은 242만㎡(4.4%)이다.

지구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충남 당진군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자동차 부품산업과 전자정보산업 및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아산시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 및 관광위락 기능을, ▲서산시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 부품산업 기능을,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는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및 국제비즈니스 외에도 관광과 위락기능을, ▲화성시 향남지구는 생명공학 산업 글로벌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종 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의 계획들이 동시에 지정·승인 또는 변경되는 효과가 있고,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36개 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된다.

▲또한,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수도권 규제 적용배제, 노동규제 완화 등 이 있게 되며,

▲또한,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확대 등의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남도와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당진에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7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능력을 갖춘 개발사업자의 선정을 거쳐 내년중에는 실시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범정부적 지원 발판을 마련하여 기반시설 및 주요 시설의 입주, 외국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아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 인프라 조성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44조 8,950억원, 부가가치유발 15조 4,630억원, 고용창출 28만 3천여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충남지역은 11조 940억원 생산유발액과 3조 3,55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 5만 9,498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구역지정을 위해 보내주신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두바이, 싱가포르, 푸둥 등 세계적인 경제특구와 경쟁하여 전세계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매력과 역동적인 경제구역개발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충남도, 단독 외자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액 유치

- 러시아 DI그룹 6억5,000만 달러 투자 유치



충남도가 자치단체의 단독 외자 유치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6억5000만 달러(한화 6천5백억원)의 러시아 자본을 유치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신준희 보령시장, 로스토프주 돈인베스트 그룹(Doninvest Group · DI 그룹) 파라모노프(Paramonov) 회장, 타가즈코리아 이승철 사장은 5월 13일(현지 시각) 타간로그시 타가즈 자동차 공장에서 2012년까지 충남에 6억5,000만 달러를 들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경기도가 LG트윈스와 해외 기업이 합작한 외자 12억 달러를 유치하고, 삼성전자와 소니와 합작한 S-LCD가 충남에 9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한꺼번에 유치한 외자 규모로는 이번 DI 그룹의 6억5,000만 달러가 가장 많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유치한 외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 분야(Green Field) 분야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DI 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관창산업단지 38만7,100여㎡(11만7,300평)를 임대방식으로 제공받아 3개월 이내에 외국인 투자신고와 입주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와 의무사항을 이행한 뒤 하반기에 착공해 2009년부터 공장을 가동한다.

또 도내 다른 지역에 2010년까지 66만여㎡(20여만평) 규모의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설치,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보령시는 공장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부대서비스 시설도 지원하는 한편, DI 그룹의 외국 인직접투자(FDI)가 각종 지원규정에 충족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DI 그룹이 충남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DI 그룹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라모노프 회장은 “DI 그룹이 충남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열심히, 그리고 빨리 일하는 한국인의 성실함과 자동차와 관련한 높은 기술력 등 멋진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러시아 DI 그룹의 외자 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이를 통해 직접 고용만 4,000명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만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충남이 러시아 자본 유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2012년까지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만 타가즈 2,600여명, 협력사 1,500여명 등 4,100여명에 달하고, 향후 200여개의 부품 업체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타가즈에서 생산하고 있는 코란도와 무쏘의 부품 각 10억 달러, 기타 부품 4억 달러 등 연간 24억 달러 상당의 수출 증대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간 40피트 규모의 컨테이너 5만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컨테이너 1대당 50만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때 물류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연간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선적 항구 활성화 및 이에 따른 물류 기업 유입 효과, 직·간접 고용 증대에 따른 서비스산업 활성화, 경제활성화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더 나아가 DI 그룹의 입주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을 적극 활용해 정부가 물동량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보령신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번 DI 그룹의 외자 유치를 교훈으로 삼아 러시아 자본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방향으로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행정도시~ 용인~하남을 연결하는 제2경부선과, 교통체증이 심각한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홍성~평택간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선을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충남내륙 균형개발을 위하여 부여~아산간 고속도로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남북방향의 4개축을 형성하고

동서축으로, 당진~천안고속도로와 함께 장기적으로 서천~논산~금산(대전)으로 이어지는 고속화도로와 보령~공주간 고속도로를 추진계획이며, 충남지역을 X축으로 연결하는 당진~대전과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는 내년 추석 전에 조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도확장사업도 시행 중에 있는 40개 지구 411.8km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도 4차로율을 현재 51%에서 목표연도인 2017년에는 82%로 신장시켜 나가면서

보령~부여(국도제40호선) 및 추부~진산(국도제17호선), 국도제77호선 안면도 구간과 유구~아산간(국도39호선) 조기착수와 함께 덕산~합덕간(국도제40호선) 국도지정을 추진 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미 개설구간인 천안 병천~입장(국지도57호선) 및 서천 화양~양화(국지도68호선)와 국지도 승격이 예정되어 있는 청양~신양간(국지도70호선)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는,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서산~창리/도고~인주 등을 4차로로 확장계획이며 당진 송산지방산업단지 및 공주 탄천산업단지와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국비를 확보하여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보령~태안~서산~당진을 연결하는 서해안산업관광도로(134km)와 금강하구~부여~공주~연기로 이어지는 금강변 산업관광도로(239km)를 건설하여 산업/관광을 지원하는 도로로 활용

하면서 아름다운 도로를 건설 한다는 계획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고속도로 및 국도/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지방도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면서 투자재원 다변화를 위하여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등 민간의 유희자본을 유치하여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 된다

— 도정시책 성공을 위한 실무가이드인 「도정홍보 매뉴얼」발간



충남도가 각종 도정시책 추진시 홍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표준안이 없어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도 홍보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시책 성공을 위한 홍보 실무 가이드인 「도정홍보 매뉴얼」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여 5월 27일 전 실·과·사업소에 배부했다.

도정홍보 매뉴얼에는 ▲공무원의 홍보 수칙 ▲홍보실무가이드 ▲홍보 계획수립 요령 ▲언론 인터뷰 요령 ▲브리핑·연설문 작성요령 ▲언론모니터 요령 등 실무지식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5쪽 분량의 포켓용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브리핑 및 연설문 작성요령과 홍보 계획 수립 요령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경험이 부족한 신규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은 “정보화가 진전 될수록 정책홍보의 비중은 커져가고 있으며, 정책과 홍보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와 받을 수 있다” 며

“정책 입안시부터 홍보를 통해 여론을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무원들이 홍보 기법을 충분히 익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니 전 직원이 숙지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忠清南道, 日 나라현과 ‘문화관광 교류협정’ 체결

— 백제와 아스카시대 옛 명성에 걸맞는 문화교류 활발 기대



충남도는 6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양 도·현 박윤근·우에노 준이치 문화관광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 도·현의 문화사업 교류 적극지원 ▲양 도·현의 문화·관광·체육 등 행사 지원·협조 및 홍보활동에 주력 ▲양 도·현에 위치한 문화연구기관·박물관·도서관 등 전문기관 간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등 추진 ▲협정체결 이행 위해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기로 합의하였다.

도에서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되면 ▲제54회 백제문화제 홍보 및 참

관단 파견 요청 ▲2010 대백제전 과 평성천도 1300년 기념사업의 홍보 및 교류협력 ▲2010년에 옛 백제의 해상로인 나라현~제주도~당진~상해 구간에 해상 백제로드 크루즈 운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6월에 제의했던 ‘2010 대백제전’ 과 ‘평성천도 1300년 기념사업’ 협력에 대해 아라이 쇼고나라현 지사께서 흔쾌히 승낙해 줘서 감사드린다.” 며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교류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도·현은 백제와 아스카시대 옛 명성에 걸맞는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등 일행 55명은 협정서 체결식 끝나면 아스카 문화가 전래되었던 백제문화의 본향인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역사문화관, 정림사지 등 백제유적지를 답사하고 5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충남도와 나라현은 지난해 6월 13일 나라현에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년동안 총10회에 이르는 교류와 협의를 통해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道, 전국 No.1 브랜드 ‘토바우’ 육성

－ 올부터 2012년까지 368억 투입, 전국 도매시장 출하두수 17% 점유 목표

충남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충남 한우 브랜드인 ‘토바우’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토바우 5개년 중장기 도약·정착계획’을 6월 13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368억원을 투자하여 ‘토바우’를 전국 넘버 원(No 1) 한우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현재 830여호에 3만9천여두 규모를 2012년까지 1,200여호에 10만여두 규모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위해 올해 41억원을 투자,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을 신설·운영하고, 브랜드 참여 한우 전 두수 혈통등록 및 암소 핵군우 1만두를 확보하고, 양질의 조사료와 우량송아지 생산·공급을 위해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13개소와 송아지 생산기지 13개소를 조성하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불거진 안전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뢰 받을 수 있는 명품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금년중에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밖에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재 17개 전문판매장을 2012년까

지 400여개 전문판매장·전문식당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공 및 물류유통기지 5개소를 운영하여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충남도는 중장기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10만여두를 사육하여 연간 1만3천여두를 출하하게 되어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출하 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 점유율 17%를 차지하는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도약하는 한편, ‘토바우’가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갈 구심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구도지사, 日 간사이~청주공항 직항로개설 이끌어 내

- 11일, 하시모토 오사카부지사(大阪府知事) 만나 직항로개설 전격 합의
- 직항로 개설로 2010년 대백제전에 일본관광객 5만명 찾을 것으로 기대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간사이(關西空港) 국제공항 간 직항로 개설 논의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백제문화제 홍보 등을 위해 일본·동남아를 방문중인 이완구 충남지사는 일본순방 첫째날인 6월 11일 하시모토도오루(橋下 本徹·38)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와 만나 중부권 거점공항이 청주공항과 일본 관서지방 거점공항인 간사이공항 간 직항로를 개설하자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1997년 국제공항으로 개항한 청주공항은 지난해 1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선양(瀋陽) 등 중국노선과 홍콩 등

에 국제선을 띄우고 있어 간사이공항과의 직항로가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공항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주공항이 '24시간 개방 자유공항'으로 지정될 경우 24시간 공항인 간사이공항과의 연계도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충청권 주민들이 오사카를 방문하려면 인천공항까지 3시간, 대기시간 2~3시간을 포함해 5시간 이상을 허비한다.”며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간사이공항까지 2시간30분~3시간이면 충분하다”며 직항로 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순방일정을 마친 뒤 귀국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 청주공항~간사이공항 직항로 개설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하시모토 지사는 “간사이공항은 일본의 여러 공항 가운데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건설된 공항”이라며 “일본 유일의 24시간 공항인 간사이공항이 청주공항과 직항로를 개설한다면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청주공항과 간사이공항간 직항로가 개설되면 2010년 충남 공주·부여에서 개최되는 대백제전에 5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전국평가 1위

- 내년엔 인센티브 지원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국 모범도 위상 과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내년도 시도별 균특회계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돼,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모범 자치단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균형발전 평가는 2007년도 균특회계 추진 사업실적, 자체평가 절차 이행 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관련 전국단위 종합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균특회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계정사업에 55개 사업 7,060억원, 지역혁신계정 사업에 24개 사업 1,167억원 등 모두 79개 사업 8,227억원을 투자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규칙 제정,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전담부서 균형발전팀 설치등을 추진하여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도는 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여 균형발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과성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도는 내년에도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충남도가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발연,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이사진과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 사업결산 및 2008년 정관·직제 규정·인사관리규정 등의 개정, 임원 선임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했으며 충남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공동연구는 물론 미래발전 구상을 위한 창의적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의 실리콘벨리, 충청권 유치 총력



대덕특구(대전권)~오송·오창(청주권)~세종시(공주·연기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충청권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단장 육동일)은 4월 1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문규 충남도의회위원장, 학

계 전문가, 그리고 3개 시·도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중의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안”은 기초과학연구시설 및 연구소 건설, 과학비즈니스 모델 확립 및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예술·문화·산업의 국제적 융합도시 완성 등 총 3단계로 시행되는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충청권을 동북아 최고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과학중심도시, 즉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중이온가속기 시설의 세계적 사례”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원자력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정부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구축하고자 하는 가속기는 중이온가속기로 경주에 건설중인 양성자 가속기나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는 규모, 이용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면



트 구축의 중요한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근 교수는 “가속기가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연구시설임에는 틀림없다.”면서 “가속기 설립이 단기간의 사업 비즈니스와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격에 맞는 가속기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과학자와 관련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임호범 기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의 자생력과 필요성에서 제기되지 않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것은 자칫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의 당위성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 벨트 구축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상철 교수는 “충청권은 전국적으로도 과학기술부문 투자와 활발한 경제활동 지역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향후 초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력 체제, 지역 간 능동적 협력과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 구축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테크노파크 김학민 원장은 “3개 시·도(지역)의 역할과 분야 및 산업적 융합의 문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겪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접목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지역별 특성과 기능을 연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 강병주 교수는 “충청권은 서해안 개발의 연계축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내륙중심부는 서울 등 수도권내 거대 도시축과 경부축, 호남축을 잇는 도시개발 및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중심지로 등장하는 등 비즈니스에 적절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충청권의 벨트 구축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는 “성공적인 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고 벨트 구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벨트 구축이 갖는 구체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조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되어야 함을 한번 더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3개 시·도는 벨트의 충청권 유치 타당성을 널리 알리고, 벨트 유치와 관련한 내·외부적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주시, 현안과제 대안 모색 워크숍 개최



2010년 대백제전 개최를 비롯한 공주시의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공주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4월 22일 오후 4시부터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공주시의회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발

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 16개 시·군을 돌며 매년 개최하는 현안과제 해결 모색을 위한 세미나의 일환으로써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공주시 환경색채 정립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재대학교 박근수 교수는 “2010 대백제전은 공주시에서 특히 부족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전제한 뒤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준비팀을 법인화하여 민간전문가가 행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야만 체류형관광객을 위해 조성해야 할 신규 숙박촌이나 기존 숙박인프라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의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공주시의 도시경관 정비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이충훈 연구위원도 “공주시의 주거지구는 저채도와 고채도가 혼재된 주황과 회색 중심의 무겁고 수수한 이미지가, 특히 상업지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고채도의 색상을 부문별하게 사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주시의 환경색채 디자인 컨셉을 Memory(기억)와 Transition(변화)으로 설정하고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쉬는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흐름의 미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는 “지방중소도시는 ▲저렴한 경제공간 조성 ▲관리기능 위주의 기업선별 ▲인접 지역의 기업환경 및 입지 기업의 생산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자녀교육여건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과 프로그램 등 소비자로서의 기업 여건 개선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연결망,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이 충분해야 대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공주시의 편리한 교통망과 세종시와의 연계발전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유치 가능성은 있지만 저렴한 단지 조성 및 사회적 자본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일이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공주시 한 관계자는 “공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0 대백제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발연, 찰리 울프(C. Wolf) 소장 초청 특강 가져

-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진지한 토론 열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4월 24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및 충남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찰리 울프(C. Wolf) 미국 사회환경연구소장을 초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울프 소장은 지난해 충발연과 함께 장항산단 갯벌조사에도 참여했던 환경전문가로서 국제영향평가학회장을 역임했다.

충남도,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방위산업 생산기반 취약, 집적된 국방산업기관의 시너지 끌어내야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방대의 논산 유치라는 성과와 함께 충남을 국방과학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충남도와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발연 이관률 박사는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충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위산업의 집적지로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건인 신속한 의사결정,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안정적인 지역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충남지역이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국내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박사는 또 “충남에 국방과학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적 제도 정비와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국방기술상업화센터 및 국방복합기술센터의 설립,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산업대학원 개설, 그리고 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한 국방문화투어리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 박휘락 교수도 “방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군대에서 소요를 도출하는 단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방위산업체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 물자 등을 적재적소에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박 교수는 “충남은 군사이론적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잘 갖춰져

있는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방위산업체와 연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군-민-관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지역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총발연 관계자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완·종합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금산군, 5대 테마 14개 부문 발전 계획 나왔다

- 29일,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최종보고회 가져



“인삼”, “문화”, “환경”을 중심 테마로 「생명·문화금산」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금산군의 종합발전계획이 제시되었다.

29일, 금산군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금산다락원에서 가졌다.

본 발전계획은 기 수립된 「AGENDA 2015」 장기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향후 5년(2008~2012)간의 금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중기계획에서 금산군은 「NEW CHANGE! 금산 - ‘새로운 도약, 빛나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Culture)’, ‘화합·조화를 이루는 정주지(Harmony)’, ‘쾌적한 어메니티 환경(Amenity)’, ‘아름다운 금수강산(Nature)’, ‘인삼·약초 건강도시(Ginseng)’,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Economy)’를 내세웠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5대 테마 14대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시책 및 개발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금산인삼테마파크 조성’, ‘금강변 건강체험관광지 조성’, ‘금산인삼 3G(금산인삼세계화) 프로젝트’, ‘금산 New-Town 조성’, ‘금산 해피랜드(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금산군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나 새롭게 금산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금산군 전체를 4개의 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금산읍, 금성면은 ‘중심거점개발권’으로서 금산의 중심거점기능을 담당하는 개발전략을,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은 ‘대도시근교개발권’으로서 대전권 연계 및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수요에 대응한 개발전략을,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은 ‘금강레저개발권’으로서 금강의 수변생태자원과 산림자원을 이용한 개발전략을, 남일면, 남이면은 ‘산림휴양개발권’으로서 산림휴양자원 및 기타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금산군 4개 개발권역

구분	해당 지역	주요 개발 전략
중심거점개발권	금산읍, 금성면	금산의 중심거점기능을 담당
대도시근교개발권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	대전권 연계 및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수요에 대응
금강레저개발권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	금강의 수변생태자원과 산림자원을 이용
산림휴양개발권	남일면, 남이면	산림휴양자원 및 기타 관광자원을 이용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은 새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맞춘 전략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국비재원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동철 금산군수, 황장순 금산부군수, 금산군 주요 실과장, 관계사업소장, 그리고 충발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 '서해안 관광 되살리기' 제언 봇물

- 전국 관광학과 교수, 전문가 및 관광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유류피해 극복과 서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서해안 관광활성화 심포지엄」이 충청남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의 주관으로 5. 30(금) 태안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 제1부에서는 동아대학교 황영현 교수가 "관광목적지의 환경재

해 및 사고의 극복사례"를,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오순환 소장이 "친환경에서 즐거운 관광지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과제"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책임연구원이 "관광 산업적 측면의 영향과 전망"을,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박사가 "친환경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박석희 경기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제1부 발제자 4명과 함께 교수, 연구원 및 공무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국 으뜸 여름 휴가철 휴양지로 각광을 받아오던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은 지난해 12월 7일 뜻하지 않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해 최악의 해양 오염 피해를 입은바 있으나,

이후 전 국민의 따뜻한 온정과 130만 여명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안가 백사장 및 수질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최근 전문연구기관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만리포 등 일부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와 모래층 성분을 조사한 결과, 개장에 문제가 없는 해수욕장 수질 기준인 1급 수질로 판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지역은 상당수의 잠재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해양 유류 유출사고 오염 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 온 국민이 예전처럼 즐겨 찾는 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번 심포지엄은 유류 피해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 산업 붕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수 주민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국의 교수 및 관광 전문가 등의 학술적 제언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전국 관광 관련 학계 명사들의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각종 관광 활성화 정책 제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이 환경 대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2008년 상반기 공개경쟁 신규연구원 임용 및 임명장 수여

충남발전연구원은 2008년 상반기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2명의 신규연구원을 임용하고 6월 2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서별 신규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성명	임준홍	정옥식
직급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서	도시계획연구팀	환경생태연구팀
연구분야	도시계획	야생동물

충발연, 개원13주년 기념식 및 체육행사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13일(금) 연구원 대운동장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개원13주년 기념식 및 체육행사”를 가졌다.

김용웅 원장은 기념사에서 “연구원의 13번째 생일을 맞아 충남 도민과 이완구 충남도지사과 16개 시·군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창의적 연구 방

법을 통해 충남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도시계획연구팀 조봉운 박사가 10년 근속 감사패를 받았으며, 이어 벌어진 체육행사에서는 축구, 발야구, 계주 등 운동 경기를 통해 연구원의 화합을 다졌다.

충발연, 창의적 싱크탱크를 향한 혁신 마인드 고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문건 원장 초청 특강 교육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6월 17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및 충남도산하연구기관, 대전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문건 원장을 초청, “창의적 싱크탱크를 향한 연구원 혁신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출신인 정문건 원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정연의 조직 진단 및 연구원 혁신을 위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타 연구기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강에 나선 정문건 원장은 “민선 4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미래형 조직이라는 근본적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정연의 경우, 혼자하는 연구, 총체적 관리 부재, 서울시라는 틀에 갇힘, 경쟁없는 동기부여 등의 4가지 독이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시정연은 ▲조직구조의 역동성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혁신 ▲성과창출형 평가보상 ▲인력 전문성 제고 ▲예산구조 개혁 등 5대 핵심과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연구기관’이란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연구원의 통합적 연구를 위해 기존 6부 체제를 2본부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연구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산재해있던 연구지원 기능을 ‘기획조정실’ 하나로 통합하여 유기적 지원체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정연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혁신전략을 수행하여 2011년부터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강 교육을 개최한 충남연 관계자는 “시정연이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각 연구조직의 혁신 의지를 모아 실정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간다면 창의적 싱크탱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KAIST 미래도시연구소와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이하 ‘충발연’)과 KAIST 미래도시연구소 (소장 김진근, 이하 ‘KIUSS’)는 6월 24일 오전 11시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충발연의 정책적 도시계획방법과 KIUSS의 공학적 도시설계방법간의 연구 조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성과물 및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유관행사의 공동개최, 연구과제 공동수행 등 다양한 연구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적, 전문적 지식과 인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충남의 도시정책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양 기관의 협력 연구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서는 KAIST 미래도시연구소의 박희경 교수를 초청, “도시인프라 재생기술의 개발방향”이란 주제 강연도 함께 이어졌다.

충남발전연구원 신창수 사무처장 퇴임



충남발전연구원 신창수 사무처장이 6월 26일 퇴임식을 갖고 1년 5개월 몸담았던 충발연을 떠났다.

신창수 사무처장은 청양군 부군수를 지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성공적인 연구원

신청사 이전과 다양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하였다.

퇴임식에서 김용웅 원장은 “떠나는 신 처장님의 제2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연구원들의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RHRD패키지(R-pack)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5월 21일(수) RHRD패키지(R-pack)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겸한 최종보고회를 청양 호텔샬레에서 개최하였다.

지역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본 사업은 인적자원 수요공급 현황조사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준과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수요와 공급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내 취업경쟁력을 강화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지난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되어 부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 울진군과 함께 전국 시범사업으로 수행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1,281백만원(국비 900, 도비 250, 대학 131)이 투자되었으며, 충청남도 내 총14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한 도내 학생은 2,800여명에 이르며 전공 및 취업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현황도 25%에 이른다. 또한 진로적성 검사, 취업 클리닉 등으로 지역 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업을 통해 충남지역의 인적자원 수급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 관련 행사를 통해 지역의 청년층 취업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2008년도 제2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2008년도 제2차 “지역경제연구회”를 4월 24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 대전·충남지역의 혁신관련 테마 중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대전·충남지역의 경제전문가 20명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연구회는 현재 3년째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 2월 21일 1차 연구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연구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최근 일본의 지역정책 동향: 균형이나 경쟁이나”라는 주제 아래 1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뒤 이어 공주대학교 김봉한 교수의 “지역 간 주택가격의 전이효과”를 주제로 하여 2주제 발표 및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연구회를 통해 대전·충남의 경제를 우리나라의 강남과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를 접목시켜 향후 경제력 향상의 청사진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제자의 연구에 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간담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포지엄” 참가



지난 6월 2일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간담회가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평단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균형위, 행안부, 지경부, 국토부, 시도협의회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 시도를 비롯하여 시군구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존속이 확정되면서 이번 의장단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정부의 방향과 맞물려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으로 의장단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6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의 공동주최로 “글로벌시대,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자치단체 및 광역경제권구축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역경제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에서는 4월 23일 충남대학교 국제정심화홀에서 해외전문가를 초청,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의 개회사와 도시재생사업단 임서환 단장의 축사, 서울시립대학교 김창석 교수의 “중소도시 재생 사업 추진의 과제와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일본과 호주 및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재생 정책과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동경대학의 KIDOKIRO, Tetsuo교수는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 재생정책 및 사례”에서 일본의 중소도시의 쇠퇴의 원인을 인구감소, 고령화, 글로벌화로 인한 동경 집중, 중심시가지의 쇠퇴로 보았으며, 이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을 도시재생특별조치법(1998), 대형점입지법(1998), 중심시가지활성화법(1998), 도시계획법 개정(2006) 등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창조도시 정책의 사례로 가나자와시, 마켓 선도형 정책의 사례인 다카마츠시, 시민 주도형 정책의 마츠야마시를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도시 재생을 위해 첫째, 장기적인 도시발전 컨셉과 제완화 도시재생사업의 지양, 둘째, 광역적인 공간계획제도의 구축, 셋째,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